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위원회

수련지도 마무리를 위한

꿀팁 Q&A

-지역사회재활기관편-

Q&A 안내사항

본 답변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수련위원회 위원들이 근무기관에서

수련운영 경험(10년 이상)을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련과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수련 관리감독 및

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류기관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을 사전 공지합니다

Q&A 리스트

01. 코로나19로 파견수련 등 제약이 많았던 상황에서 수련과제 목표량의 달성 정도와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02. 수련사회복지사의 임상과제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03. 과제 임상사례집 제작을 해야하나요?
04. 수련사회복지사에 대한 수퍼비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05. 기관 내 자체 교육 실시 과목, 방법, 기타 운영의 노하우가 있나요?
06-1. 수련과정, 수퍼바이지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풀어나갔나요?
06-2. 슈퍼바이저로서 본인의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07. (공)공공복지전달체계이해,(공)타 직역 이해,(공)중독,(공)재난 등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08. 수련사회복지사 수료식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09. 수료 보고 시기는 언제로 정하여 진행였습니까?
10. 수련사회복지사 근무 평가, 수퍼비전 만족도 평가 방법과 기록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였습니까?
11. 1년 수련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 가운데 수련기관에서 체크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12. 수련과제를 완성하지 못하여 미이수시 차기년도 수련생TO에 포함되나요?
13. 과제물은 기관 보간 시 원본을 보관해야하나요? 사본도 가능한가요?

QUESTION

01. 코로나19로 파견수련 등 제약이 많았던 상황에서 수련사회복지사 과제 목표량의 달성 정도와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집단 및 재활프로그램의 규정 최소인원이 보통 6명~8명 이내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휴관조치 및 50%이용 등의 상황으로 소규모로 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최소 2인~5인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과제 중 타직역/기관방문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상황이 다소 안정기였을 때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코로나19상황의 악화 및 타직역의 기관사정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경우 타직역의 경우 **비대면(zoom)으로 타직역(임상심리, 정신간호 등)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QUESTION

02. 수련사회복지사의 임상과제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몇 개의 기관과 연합으로 과제 심사 함께 진행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저희기관은 지역사회 내 있는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의료기관 5곳이 함께 연합해서
임상과제 심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련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보다 질 높은 교육지원과
준비된 예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합교육〉, 〈연합 case conference〉 구술시험을
함께 진행하였고,
최우수 수련사회복지사에게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수련정신건사회복지사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03. 과제 임상사례집 제작 여부

(수련위원회 통해서 우수 사례집 선정 및 배포에 대한 의견은?)

●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임상사례집은 꼭 제작해서 〈수련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부〉,
〈기관 1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시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고,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 보관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04. 수련사회복지사에 대한 수퍼비전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빈도는 어떠했는지?

(코로나19 전후 모두 수퍼비전 경험이 있는 경우, 방식의 변화나 노하우, 빈도?)

●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매일 수련일지를 작성한 후
업무에 대한 슈퍼비전이 이뤄졌으며, 주 1회 과제에 대한 슈퍼비전 진행, 집단 프로그램 진행 전후 실시하는 슈퍼비전, 교육 및 상담, 수련생 고충에 대한 슈퍼비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연합해서 진행되는 1달에 1번씩 진행되는
〈case - conference〉를 통한 슈퍼비전이 이뤄졌는데,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연합으로
진행되는 경우 비대면(zoom)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QUESTION

05. 기관 내 자체 교육 실시 과목, 방법, 기타 운영의 노하우

(기관 내 / 기관 간 교육 실시하고 있는 경우 등 사례 공유)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 시설 5곳이 함께 연대하여
협회에서 실시한 95시간의 교육 외에 55시간 진행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 커리큐럼으로 주강사를 배정하여
실시하였기에 수련생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대면/비대면 교육 모두 다 융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55시간의 교육 외에도 연합 case-conference,
최근 정신건강이슈 및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외부강사 초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QUESTION

06-1. 수련과정, 수퍼바이지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풀어나갔나요?

06-2. 수련과정에서 슈퍼바이저로서 본인의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저희 기관은 주 3일 공식적인 수련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 심사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일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1일 더 출근하는 날에는
시급당 1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 약 30만원 정도 되는 상황으로
기관 자부담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예산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수련사회복지사 급여를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QUESTION

07. (공)공공복지전달체계이해,(공)타 직역 이해,(공)중독, (공)재난 등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대체실습(코로나-19 상황 한시적) 여부 및 마무리 현황)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연대해서 타기관 견학(교환실습을 가는 기관, 마약퇴치운동본부, 스마일센터 등)을 실시했고, 타직역 이해도 교환실습 시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 PFA교육, SBIRT교육은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에서 실시한 집합교육에 참여해서 진행하였습니다.

QUESTION

08. 수련사회복지사 수료식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 시설 5곳이 함께 연합해서 수료식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제작한 임상사례집을
함께 가지고 와서 타 수련사회복지사선생님들 역시 살펴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09. 수료 보고 시기는 언제로 정하여 진행였습니까?

●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요청한 시기에 맞춰
2월 마지막 주에 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수료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10. 수련사회복지사 근무 평가, 수퍼비전 만족도 평가 방법과 기록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였습니까?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년 1회 수료 전
전체 수련사회복지사의 과정 평가 및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11. 1년 수련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 가운데 수련기관에서 체크할 사항 등이 무엇일까요?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수련모집보고(수련계획서 작성, 슈퍼바이저 등록),
수련사회복지사 교육 이수시간 체크,
수료보고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12. 수련과제를 완성하지 못하여 미이수시 차기년도 수련생 TO에 포함되는지 정상적으로 수련생 TO로 수련생을 모집하고 차기년도 이수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수련사회복지사의 과제를 이수하지 못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만약 과제를 이수하지 못한 수련사회복지사를 내년에 다시 수련사회복지사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면 당해연도 TO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련과제 중간점검을 통해 대체방안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3. 과제물은 기관 보간 시 원본을 보관해야하나요? 사본도 가능한가요?

● 지역사회 재활기관 편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